현대소설연구(제76호)
The Journal of Korean Fiction Research
http://doi.org/10.20483/JKFR.2019.12.76.089

전광용 소설에 나타난 공간성과 국민국가의 공간주권*

김 근 호**

요약

함경도 북청 출신의 실향민이자 월남작가 전광용의 소설에서 공간이 갖는 의미는 다대하다. 하지만 전광용 소설에 나타난 공간은 그것이 지닌 중요성에 비해 지금까지 크게 주목되지 못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인간과 해당 공간이 서로 맺는 관계, 즉 공간성이라는 분석틀에 따라 전광용 소설세계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 논리를 밝혀낼 필요가 있다.

다만 이 문제를 귀납적으로 좀 더 세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바, 전광용 소설세계의 특성을 바탕으로 우선 공간성의 공통된 특징에 주목함과 동시에 그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점차 심화·발전된 측면을 다 같이 검토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시각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논의하였다. 하나는 소설세계 전반에 걸친 공간성의 공통성에 대한 분석이다. 우선 이러한 시각에 따라 자료를 검토해보면, 전광용 소설에서는 대체로 고독한 인물이 등장하며 그 인물은 자신의 고독한 상황을 타개해나가는 방식으로 자리 또는 장소에 대한 열망을 표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분석할 대상은 그 공간성의 특징이 기본적으로 공유하는 지점을 바탕으로 점차 심화·발전되는 양상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 따라 전광용 소설의 공간성을 분석해보면, 작중 주요인물이 국토 탐구에 대한 열정을 거쳐 점차 자신이 처한 공간에서 성원권을 획득하기 위한 노력과 열정이 두드러지는 방식으로 구체화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해방 이후 본격적인 국민국가

* 이 논문은 제56회 한국현대소설학회 전국학술대회(2019년 10월 26일, 부산대학교)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 보완한 것이다. 당시 학술대회에서 토론을 맡아 논문을 다듬는 데 도움을 준 조명기 선생님(부산대)께 감사드린다.

** 전남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각종 난관과 그에 맞선 주권자의 자리 찾기에 대한 소설적 탐구로 구체화되는바, 이는 국민국가의 공간주권 모색이라는 정치적 의미로 심화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전광용은 민족주의적 태도를 바탕으로 자신이 처한 당대 사회와 정치적 현실에 대한 기민을 대응을 보여주었다. 그는 해방 이후 처음으로 맞이한 국민국가라는 정치체제에서 국민으로 호명되는 일이란 공간주권의 누림과 맞물린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했고, 그 정치적 논리를 미적 균형감각에 따라 국민 정체성과 공간 주체성의 길항으로 서사화했던 것이다.

주제어: 전광용, 월남작가, 공간, 공간성, 자리, 고독, 국토, 국민, 공간주권, 정체성, 주체성

목차

1. 머리말
2. 자리에 대한 열망과 고독
3. 국토 탐구에서 공간주권으로
4. 국민 정체성과 공간 주체성의 길항
5. 맺음말

1. 머리말

함경도 북청 출신의 월남작가 전광용이 집중적으로 소설 창작과 발표에 매달린 시간은 13년 정도라고 할 수 있다. 1955년 38세의 다소 늦은 나이로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흑산도」가 당선되면서 등단한 이후 1967년 장편 『창과 벽』의 발표에 이르기까지, 전광용은 다른 작가들에 비해 다소 짧은 소설 쓰기의 시간을 보여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전광용은 작가로서 활동하는 시기에 다량의 작품을 꾸준히 발표했다. 전광용이 쓴 단편소설 26편과 장편소설 4편을 모두 합쳐 총 30편이므로, 13년

동안 그는 비교적 많은 작품을 써냈다고 할 수 있다. 또 전광용은 주지하듯이 대학교수로서 현대문학 연구도 병행했기에, 소설 쓰기에 바쳐진 그의 노고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장편 쓰기를 시작한 60년 무렵을 전후로 그의 소설세계를 구분할 수도 있지만,[1] 60년대 작품들도 50년대 문제를 포함하며 연계되기도 한다. 즉 1960년 4·19 혁명과 이듬해 5·16 군사쿠데타가 미친 영향을 간과할 수 없겠지만, 그러한 역사적 사건의 체험은 전광용이 일관적으로 지향했던 현실주의적 소설세계를 더욱 심화·발전시킨 동력이 되었다고 판단된다.[2]

대체로 저명한 작가들에 대한 논의에 앞서 해당 작가의 대표작을 떠올리게 된다. 주지하듯이, 인지도 면에서 전광용의 대표작은 「꺼삐딴 리」이다. 1962년 동인문학상 수상작이기도 한 「꺼삐딴 리」는 한국소설사 전반을 통틀어볼 때, 이 작품의 주인공인 이인국 박사의 독보적인 캐릭터는 인정할 만하다. 처세에 능한 기회주의자적 캐릭터의 전범으로 꼽을 수 있을 지경이다. 하지만 이 작품의 주인공이 갖는 인물형의 강렬함에만 경도되면, 전광용 소설세계 전반을 가로지르는 중요한 문제의식을 놓칠 우려가 크다. 소설에서의 인물이란 특정한 시공간적 배경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지니는바, 전광용의 소설세계에 두루 나타난 인물들의 특수성을 그 인물이 처한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좀 더 깊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할 때 전광용 소설 전체를 해석하기 위한 중요한 거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전광용의 단편소설뿐만 아니라 네 편의 장편

1) 김종욱, 「전광용 소설에 나타난 삶의 윤리」, 『개신어문연구』제27집, 개신어문학회, 2008; 박정희, 「전광용 장편소설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제28집, 한국현대문학회, 2009.

2) 이와 관련하여 전광용의 소설이 50년대와 60년대를 통틀어 "작가로서의 변신이나 변모를 꾀하지 않았던 것이며, 소설의 내용이나 주제의 표출, 기술의 방법적 측면에서도 특별히 변화를 보여주지 않았던" 것이라는 식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다. 윤석달, 「변경의 삶과 시대의 초상: 전광용론」, 송하춘·이남호 편, 『1950년대의 소설가들』, 나남, 1993, 205면. 하지만 윤석달의 주장은 60년대 이후 시도된 장편소설 쓰기나 내용 측면에서 주권 문제에 대한 보다 심화된 관심과 그 형상화라는 문제를 주목하지 못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소설들까지도 함께 조망할 수 있는, 즉 전광용 소설세계 전반을 두루 아우르는 해석의 핵심 거점을 발굴하는 작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전광용의 소설 전반을 살펴보면, 인물의 성격이나 직업 등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3] 하지만 그 인물들의 처지를 보면 대체로 섬 같은 공간에 소외되거나 고립된 상황, 분단체제로 인한 갈등과 고통, 이승만 독재정권이나 그 이후 등장한 박정희 군부독재 등 부정적인 현실에 고립된 인물이 대부분이다. 특히 공간적 측면에서 보면 표면적 다채로움이 심층적 공통성으로 묶여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광용의 소설에는 자리 또는 장소(place)를 갖기 위한 주요인물의 분투가 압도적으로 많이 등장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해방 이후나 한국전쟁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는 경우에 그러한 경우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특정 사회에서 자기만의 자리를 갖지 못한 자는 주권적 상황에 놓이지 못한 자이다. 그런 점에서 누군가에게 자리의 부재란 해당 공동체에서 사회적 인간으로서의 성원권을 당당히 획득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전광용은 자신의 소설에서 바로 그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소설화함으로써 한국이 근대 국민국가로의 발전 과정에서 발생했던 공간주권의 문제를 화두로 던져놓았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연구는 전광용 소설세계 전반을 가로지르는 공통성 및 그에 기반한 소설세계의 심화·발전 내역을 탐구하고, 나아가 그 심층에 가로놓인 구체적인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 공간과 그 속의 인물의 역학관계에 주목하고자 한다. 공간은 그 공간에서 살아가는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인간은 공간에 대한 특정한 감정과 인식을 갖고 표현하게 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전광용 소설에 관한 연구에서 공간적 특성과 인물의 관계를 분석한 경우가 없어 보인다. 그리고 그러한 소설적 형상화가 갖는 정치적 의미에 대한 검토 역시 아직까지 없는 듯하다. 전광용에 대한 지

3) 이런 점은 여러 논자들에 의해 지적된 바이기도 하다. 비교적 최근 논의로 다음을 들 수 있다. 김종욱, 「전광용 소설에 나타난 삶의 윤리」, 『개신어문연구』제27집, 개신어문학회, 2008.

금까지의 연구 경향을 대별해보면, 우선 일관적으로는 현실주의적 태도와 그 소설적 형상화에 관한 논의를 들 수 있다.[4] 이러한 논의는 전광용 소설의 기본 특징을 내용과 형식의 양면을 포괄적으로 살피면서 성실한 현장 취재와 간결하고 꼼꼼한 표현 등을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 다음으로는 전광용 소설에 종종 나타나는 운명론적 세계관과 함께 그에 맞선 개인의 능동적인 태도 또는 가치 지향을 균형 감각의 차원에서 지적하는 논의도 있다.[5] 기타 장르 차원의 특성에 집중한 연구도 있다.[6]

이처럼 전광용 소설의 경우 다른 전후문학 작가들에 비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의 소설에 관한 논의가 조금씩 심화되고 분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전광용 소설을 이해할 수 있는 지평을 좀 더 심화하고 확장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공간과 인물의 역학 관계에 주목하고자 한다. 볼노(O. F. Bollnow)의 입론에 따라 공간에 대한 인물의 관계를 '공간성(spatiality)'이라 할 수 있을 텐데,[7] 이 연구는 전광용 소설세계에 나타난 공간성의 기본 특징을 귀납적으로 분석하되 공간성의 공통성과 함께 그 공간성이 점차 심화·발전되어간 지점을 차례대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그의 소설이 갖는 의의를 당대 사회와 맺는 지점에서 해석해내고자 한다. 어찌 보면 전광용은 다른 월남작가 및 전후작가들과는 달리 늦깎이로 등단한 만큼, 좀 독특한 소설세계를 갖고

4) 대표적으로 다음 논의를 들 수 있다. 이형기, 「인간수호의 시선: 전광용론」, 『현대한국문학전집(5)』, 신구문화사, 1967; 조남현, 「전광용론: 리얼리티에의 투망, 그 정신과 방법」, 『한국현대작가연구』, 문학사상사, 1991; 권영민, 「전광용의 현실인식과 소설적 기법」, 『소설과 운명의 언어』, 현대소설사, 1992; 류양선, 「시대적 상황과 개인적 진실」, 『두고 온 고향 외(전광용문학전집5)』(전광용문학전집 간행위원회 편), 태학사, 2011.

5) 대표적으로 다음 논의를 들 수 있다. 김만수, 「비극적 삶, 소외의 극복양상」, 『전광용 대표작품선집』, 책세상, 1994; 김종욱, 「전광용 소설에 나타난 삶의 윤리」, 『개신어문연구』제27집, 개신어문학회, 2008; 안리경, 「전광용 문학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6) 박정희, 「전광용 장편소설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제28집, 한국현대문학회, 2009; 주지영, 「전광용 단편소설에 나타난 서사구조의 유형화」, 『한국문예비평연구』제52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6.

7) 오토 프리드리히 볼노, 이기숙 역, 『인간과 공간』, 에코리브르, 2011, 351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8] 그것은 당대 정치적 현실에 대한 소설적 대응이 매우 기민하고 그에 덧붙여 특히 공간에 대한 정치적 의식이 두드러진다는 사실로 입증할 수 있을 듯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이 연구는 전광용 소설세계 전반을 공간적 특징과 그 공간에 놓인 주요인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되 특히 작품에 그려진 서사세계의 정치적 의미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9]

2. 자리에 대한 열망과 고독

등단 이후 전광용이 소설을 발표한 50년대 중반부터 60년대 후반 무렵까지는 분단체제의 성립과 한국전쟁의 발발 등으로 인한 상흔이 깊었고, 그러한 상황에서도 남한의 국민국가 형성을 위한 정치적 실험과 좌절 등이 급박하게 진행된 시기이다. 전광용은 가급적 자신이 겪었던 시대의 특수성을 최대한 소설세계 속에 구현하고자 했는데, 그러한 노력은 궁극적

8) 전후문학을 대표하며 월남작가에 속하는 작가들을 중심으로 정체성 문제를 깊게 논의한 류동규, 서세림, 전소영 등에 의한 비교적 최근의 몇몇 연구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들은 선우휘, 손창섭, 이범선, 이호철, 최인훈 등을 주된 검토 작가로 삼고 있다. 하지만 전광용은 검토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해서는 전광용 소설이 월남작가 연구의 관심사에서 벗어나 있거나 아니면 전광용에 관한 논점이 좀 특별하여 다른 월남작가들과 함께 다루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류동규, 『전후 월남작가의 자아정체성 서사』, 역락, 2009; 서세림, 「월남작가 소설 연구: '고향'의 의미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전소영, 「월남 작가의 문학 세계에 나타난 주체 형성 과정 연구: 최인훈과 이호철의 소설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9) 기본자료는 전광용 소설의 전부를 수록한 『전광용문학전집』의 총 5권(태학사, 2011) 중 제1권(「꺼삐딴 리」 외: 단편소설 수록), 제2권(『태백산맥』, 『나신』: 장편소설 수록), 제3권(『젊은 소용돌이』, 『창과 벽』: 장편소설 수록)인데, 이 중 제2권의 『태백산맥』은 일부 누락된 대목들이 있어, 1995년 동아출판사에 발간한 '한국소설문학대계(33)'의 『태백산맥』을 자료로 삼고자 한다. 앞으로 작품을 인용할 경우, 작품명과 해당 작품이 수록된 전집 또는 작품집(대계) 그리고 면수만 표기하도록 하겠다.

으로 월남작가로서의 정치적 주권 갖기 또는 모색하기로서의 소설 쓰기로까지 심화되고 성숙되어갔다. 그런 점에서 전광용의 소설 전반이 대동소이하다는 일각의 평가는 온당하지 않은 셈인데,[10] 그러한 일방적인 평가에 맞서는 특징으로 전광용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 유형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다. 등단작인 「흑산도」(1955)의 어부(漁夫)부터, 기자(記者)(「해도초」(1958)), 광부(鑛夫)(「지층」(1958)), 의사(醫師)(「충매화」(1960), 「꺼삐딴 리」), 약사(藥師)(「면허장」(1962)), 비어홀 여급(『나신』(1964)), 대학교수(『창과 벽』(1967)) 등 매우 다양한 직업의 인물들을 최대한 많이 소설화하고 있다. 당대 인간 군상에 대해 전광용은 최대한 포괄적 관심과 소설적 열정을 보였던 것이다. 그래서 그의 소설세계는 전반적으로 반복된다는 느낌을 불식시켜준다.

그럼에도 전광용 소설세계의 공통된 기층을 확인할 수 있는바, 그 많은 인물들이 대부분 낯선 공간에 놓여 있게 되거나 또는 새로운 공간을 찾아가고자 열망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전광용 소설의 인물은 공간과의 친밀성을 애당초 갖지 못하거나 궁극적으로도 획득하지 못하며 겉도는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그들은 대부분 고독하다. 고독은 전광용 소설에 등장하는 주요인물들의 핵심 감정이며 내면성이 깊은 인물이 다수를 이루는 것과 깊은 관련을 지닌다. 문제는 고독의 감정이 단순히 소외되었다거나 외딴 곳에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은 아니라는 점이다. 잘 살피면 전광용 소설에서의 인물들은 자신의 정당한 자리 또는 장소를 갖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외부와의 단절로 인해 궁지에 빠진 것과 같은 상황을 연상시키는 고립(isolated)이라기보다는 어디든 가고 또 어떻게든 살아가는 그 현장 공간과의 친밀성 또는 애착이 형성되지 못한 상태로서의 고독감(loneliness)에 빠져있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다양한 인물들을 휘감는 공간이

10) 윤석달, 「변경의 삶과 시대의 초상: 전광용론」, 송하춘 · 이남호 편, 『1950년대의 소설가들』, 나남, 1993, 206면.

고 그에 연관된 인물의 감정인 셈이다.

우선 자기만의 공간을 갖고자 하는 열망은 지배적이다. 이는 등단작인 「흑산도」부터 『창과 벽』까지 일관된 면모라 할 수 있다. 우선 「흑산도」의 배경인 흑산도는 폐쇄적 섬이라는 공간적 특성을 지니며,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물들의 삶을 그 공간 속에 가두어 놓는 결말에 이른다. 주인공인 복술이는 그녀의 애인인 용바우가 바닷일을 하러 나갔다가 죽어 돌아오지 못하게 되지만, 육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지닌 채로 끝끝내 섬에 머물고 만다. 「벽력」(1958)은 직장을 갖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주인공의 이야기이다. 이 작품의 창식이라는 인물은 수위 등의 일을 하곤 했지만, 결국 일자리를 잃고 고충을 겪다가 이웃에 진 빚을 갚지 못해 살던 집마저 잃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면서 서사가 마무리된다. 「영 1234」(1959)는 최초의 국산 택시인 '시발(始發)'의 조수 노릇을 하는 인물이 1인칭 주인공 화자로 나오는 이야기이다. 이 작품에서 주인공은 서울에서 자신만의 자리(place)를 제대로 갖지 못한 상황에 놓여있다. 시골에서 상경하여 대학생활을 하는 동안 입주 가정교사 노릇을 하면서 외롭게 버티어가는 주인공의 이야기인 「초혼곡」(1960) 역시 마찬가지로 자리의 부재와 자리에 대한 열망을 서사화하고 있다. 전남 여수의 한 섬을 배경으로 한 「곽서방」(1962) 역시 간척지를 경작하며 살아가는 곽서방이라는 인물이 자신만의 논과 밭을 갖고자 열망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낸다.

이처럼 자기만의 자리에 대한 소망을 담은 서사는 1960년대 이후 시도한 장편소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후 혼란스러운 세태를 다룬 『나신』을 보면 술집 여급 등의 일자리를 찾아 떠도는 여자 주인공 오은애가 등장한다. 그녀는 생활비와 학비, 그리고 어머니의 약값을 벌기 위해 대학을 중퇴하고 술집의 여급으로 일하게 된다. 자신의 순결을 빼앗은 한식을 찾아 파주의 기지촌(基地村)으로 흘러간다. 둘은 만나서 희망에 찬 삶을 새로이 꿈꾸며 서사가 마무리되지만, 서사 전반을 통틀어 볼 때, 오은애의 삶은 안정적인 자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표류하는 상황이다. 『태백산맥

』(1963)은 병역 미필자로서 국토건설군(國土建設軍)에 강제 징집되어 군역을 대체하는 주인공 한철의 이야기이다.[11] 박정희 정권 초기를 배경으로 한 작품인데, 이 작품에서 한철은 태백산 근처의 철도 건설작업에 투입되어 같은 이유로 징집된 건일, 곰, 깍두기 등의 여러 인물들을 만나고 함께 노동하며 지내게 된다. 한철은 그 속에서 닫힌 사회, 즉 공동체가 점차 병영체제로 변화해가는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 국토건설군에서 한철이 자기가 차지하고 누리는 공간은 자유가 점차 박탈당해가는 과정을 노정하고 있다. 공간에 대한 주권적 지배권을 전혀 갖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셈인데, 그러한 상황의 한복판에서 한철은 "이것이 다 끝난 다음 자기가 다시 돌아갈 자리는 대체 어디일까…"[12]라는 말을 같은 대목에서 두 번 이상 반복하기까지 한다.

자기만의 자리에 대한 열망은 역설적으로 안정된 자리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 따라서 공간의 주체가 해당 장소와의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지 못한 상황임을 말해준다.[13] 전광용 소설에서 지배적인 감정이 외로움인

11) 국토건설군은 1960년대 초반에 실제로 있었던 조직이다. 이승만 정권의 몰락 직전에 준비된 국가 주도의 경제개발계획을 4 · 19 혁명 이후 민주당 정부가 이어 받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한 '국토건설사업'이 있었고 그것을 위한 조직으로 '국토건설단'이 창설된다. 하지만 그 조직을 바로 이듬해 쿠테타로 권력을 잡은 박정희 군부세력이 성격을 변형시켜 병역미필자 및 불량배나 부랑자들을 국토개발에 동원하고자 했고, 그것을 위하여 당시 집권층은 1961년 10월 20일에 국토건설단을 '국토건설군'으로 개칭하였다. 이에 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임송자, 「1961년 5 · 16 이후 국토건설사업과 국토건설단 운영 실태」, 『한국근현대사연구』제67집, 한국근현대사학회, 2013, 906-920면.

12) 「태백산맥」, 『대계』, 194면.

13) 이-푸 투안(Yi-Fu Tuan)은 공간은 움직임이며, 개방이며, 자유이며, 위협인 반면, 장소는 정지이고, 개인들의 안식처이며, 안정과 애정을 느끼는 고유한 중심이라고 주장했다.(이-푸 투안, 구동회 · 심승희 공역, 『공간과 장소』, 대윤, 2005, 7면) 한편 김현경은 영어 단어 'place'의 한국어 번역으로 '장소'와 '자리'를 둘 다 쓸 수 있는데, 물리적 의미의 장소에 비해 자리는 상징적 의미를 더 많이 지향한다고 주장한다. 자리란 사회적 성원권을 누리거나 얻는 것과 좀 더 가까운 개념을 지닌다는 것이다.(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문학과지성사, 2015, 288-289면) 하지만 아직까지 일반적인 장소 논의에서는 체험적이고 구체적인 활동의 기반이면서도 사회적 실천이 전개되는 곳이라는 문화적 · 상징적 의미를 모두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강

데, 이 외로움은 단편 「흑산도」 때부터 장편 『창과 벽』까지 대부분 작품에 걸쳐 지속된다. 특징적인 것은 그 외로움이 공간과의 관계 속에서 생겨난 감정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이다. 타자와의 불화나 소외로 인해 생겨난 인물의 감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거주하고 있는 공간과의 친밀성을 갖지 못해 생겨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그려진다. 「흑산도」의 배경인 흑산도는 폐쇄적 섬이라는 공간적 특성을 지니며,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물들의 삶을 그 공간 속에 가두어 놓는 결말에 이른다. 주인공인 복술이는 그녀의 애인인 용바우가 바닷일을 하러 나갔다가 죽어 돌아오지 못하게 되지만, 육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지닌 채로 끝끝내 섬에 머물고 만다. 「진개권」(1955)에서는 한국전쟁으로 인해 홀몸이 된 쌍과부와 장서방이 등장한다. 주요인물인 이 두 사람 외에도 홀로된 인물이 다수 등장한다. 인물 대부분이 실향민으로 등장하는 「경동맥」(1956), 「바닷가에서: 반편들」(1962) 같은 작품들 역시 거주하는 장소와 긴밀한 애착이 없는 서사이다. 곧 어디로 가야 하거나 제주도 등의 고향을 그리워하는 인물들이 다수 나온다. 그들은 표류하는 상황에 놓여있고 깊은 마음으로는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공간 자체가 폐쇄적인 이야기도 있다. 탄광촌에서의 탄광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지층」 역시 공간적으로 폐쇄적이고 고립된 인물들에 관한 작품이다. 탄광굴이라는 공간 자체가 폐쇄적이다. 그러한 탄광과 그 마을에서 생업을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일을 해야 하는 주인공 칠봉이는

하다.(최병두, 「장소의 역사와 비판적 공간이론」, 『로컬의 문화지형』, 혜원, 2010, 64-65면) 특히 전광용의 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자리'는 물리적이면서도 사회적 상징성을 동시에 지닌다. 소설에 형상화된 공간이나 장소는 전체 서사 속에서 의미를 지니는 것이거니와, 한 작가가 소설세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주목하여 다루는 것이라면 단순히 물리적인 의미로만 한정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이 글에서는 장소나 자리를 같은 개념으로 보되, 전광용의 소설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용어이자, 김현경의 말처럼 사회학적 상징성을 더 많이 지니는 '자리'라는 용어를 쓰고자 한다. 특별히 의미 혼란을 일으키지 않은 선에서 어감을 고려해야 하는 것과 같이 필요한 경우에 장소라는 용어도 함께 쓸 수 있을 것이다.

돈을 벌어 장차 대처(大處)로 나갈 열망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다이너마이트 폭발 사고로 의지하던 권노인은 죽고 사랑하던 영희 역시 마을을 떠나고 만다. 「흑산도」의 서사와 비슷하다. 「죽음의 자세」(1963)는 감옥에 수감된 주인공 덕수(德秀)의 현재 상황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어,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과거 사건을 회상하는 방식으로 서사가 전개된다. 이승만 정권에서 주입된 반공 이데올로기와 그에 입각한 정책으로 인해 한 가족이 풍비박산이 나는 이야기인데, 주인공의 처남 윤수가 휴전선을 넘어 서울의 매형 집에 누나와 매형을 찾아와 만나게 된 사건으로 인해 처남과 덕수는 감옥에 수감된다. 덕수가 수감된 것은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죄목 때문이다. 서사의 앞부분에 등장하는 대목인데, 덕수는 감옥에서 "역시, 자리를 고르지 못하고 잘못 태어났어."[14]라며 자신이 처한 현실을 공간적 문제로 표현한다. 이 작품의 종결 부분은 덕수가 브라질 이민을 꿈꾸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이처럼 전광용 소설에서 주요인물은 자신이 처한 공간과의 불화를 겪고 있으며 그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또 새로운 자리 혹은 장소에 대한 열망을 드러내는 서사가 상당히 많이 나타난다. 그러한 면모는 등단 이후 전광용이 실제로 여행을 매우 즐기며 좋아했고,[15] 유명한 여러 섬(島)을 비롯하여 전국 곳곳을 두루 답사하면서 소설의 소재나 공간적 배경을 탐색했던 것과도 관련된다.[16] 실향민으로서 전광용은 폐쇄적인 태도로 특정 공간으로만 칩거하지 않고 국토 전반에 대한 관심과 탐구의 열정을 보

14) 「죽음의 자세」, 『전집(1)』, 405면.

15) 전광용, 「가을의 여정(旅情), 가을의 여수(旅愁)」(1962), 『두고 온 고향 외(전광용문학전집6)』(전광용문학전집 간행위원회 편), 태학사, 2011, 321면.

16) 전광용은 여행과 학술답사를 매우 즐김으로써 국토 전반을 두루 답사할 수 있었다는 것을 기록한 여러 산문을 남겼다. 대표적으로 다음 글을 들 수 있다. 전광용, 「서해(西海)의 휴전선상(休戰線上)을 가다: 백령(白翎)·대청(大靑)·연평도(延坪島) 학술조사(學術調査)를 마치고」(『세계일보』, 1958), 『두고 온 고향 외(전광용문학전집6)』(전광용문학전집 간행위원회 편), 태학사, 2011.

이는 것으로 자신의 상황을 극복해나갔다. 즉 전광용의 소설을 관통하는 자리에 대한 열망은 월남작가로서의 전광용이 겪었던 실제 처지와 깊이 관련된 문제일 터이다.

3. 국토 탐구에서 공간주권으로

개별 작품들을 두루 관통하는 자리에 대한 인물의 열망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는바, 소설세계 전반을 통틀어보면, 전광용의 소설은 국토 탐구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기도 한다. 해방과 동시에 분단이 되고 그 과정에 전광용은 고향인 함경도 북청을 떠나 서울대학교에 입학한다. 그 과정에서 동족간의 전쟁을 치르면서 부산의 피난지 생활을 어렵게 하고 휴전 후 서울로 복귀하지만 분단체제가 고착화되는 과정을 겪는다. 하나의 민족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꿈은 남·북 각자의 정부수립과 전쟁으로 인해 물거품이 되고 만다. 휴전 이후 1955년 등단한 전광용은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국가, 즉 국민국가(nation-state)를 본격적으로 실험하는 상황에 놓였다. 다른 전후 작가들과는 달리 1955년에 다소 늦깎이로 등단한 전광용은 바로 이 문제가 월남작가로서의 정체성에 덧붙여진 또 다른 문제의식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국토 지향성은 이미 예비된 것이기도 했다고 판단된다. 등단 이전 대학신문에 발표한 「압록강」(『서울대학신문』, 1949)에서부터 전광용은 민족 해방에 대한 열정의 서사를 보여주는데, 이 작품은 성주라는 주인공이 일제강점기인 1919년 3·1 만세운동을 위한 선언서를 중국과 만주 일대의 동포들에게 전달하는 임무를 수행하다가 기차간에서 안면이 있는 조선인 일본 헌병과 만나면서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지만 결국 그 헌병의 민족애로 인해 문제가 잘 해결된다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민족주의자적 면모는 등단 이후 발표한 대부분의 소설에서 특정한 지역 또는 공간적 배경으로만 한정되지 않고 국토 전반에

대한 포괄적 관심과 애정이라는 결과를 낳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전광용은 인물의 신분적 다양성 못지않게 배경으로서의 공간적 다양성 역시 보여준다. 한반도 전역을 놓고 볼 때, 그의 소설들은 가급적 한반도, 특히 분단 이후 남한의 지역 및 장소를 포괄적으로 담아내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우선 등단 초기부터 전광용은 전라도 서남단 끝에 위치한 섬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흑산도」를 통해 자신의 고향이나 주된 생활 구역과는 매우 거리가 먼 지역을 소설의 배경으로 다루기 시작한다.[17] 이후 동해의 외딴 섬 독도(獨島)에서의 미군 폭격 훈련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다룬 「해도초」, 전남 여수 부근 작은 섬 '경도'를 배경으로 한 농부의 자력갱생의 이야기를 다룬 「곽서방」, 강원도 주문진에 모인 전국 각지 출신의 피난민들이 겪는 고난과 각자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다룬 「바닷가에서: 반편들」 등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국토에 대한 포괄적 시선과 관심을 민족애를 바탕으로 그려낸다. 부산 피난지에서의 삶과 월남민들의 처지를 다룬 「동혈인간」(1956)과 그 후속작인 「경동맥」, 「퇴색된 훈장」(1959) 등을 들 수 있고, 비슷한 상황에 처한 주인공이 대구에서 인생 역전의 기회를 얻게 되는 「G · M · C」(1959)도 들 수 있다. 한국전쟁 이전 평양과 전후 서울을 배경으로 한 「꺼삐딴 리」도 공간적 이행과 넓이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장편 『젊은 소용돌이』(1966)는 이승만 독재정권의 몰락을 이끌어낸 1960년 마산에서의 부정선거 규탄 의거를 배경으로 삼기도 한다. 그 외 작품들은 대부분 서울을 공간적 배경으로 삼고 있다.

국토에 대한 전광용의 깊은 관심은 점차 국토에 대한 사랑으로 발전하

17) 전광용은 등단작인 「흑산도」가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의 현지 학술답사에서 절해고도(絶海孤島)로서의 흑산도와 그 곳에서 살다 죽어가는 사람들의 삶에 깊은 충격과 인상을 받아 창작된 것임을 밝힌 바 있다.(전광용, 「글과 술과 인간」, 『두고 온 고향 외(전광용문학전집6)』(전광용문학전집 간행위원회 편), 태학사, 2011, 78-79면) 이처럼 소설가로서 현장 답사를 중시하는 태도는 그의 소설세계 전반에 걸쳐 지속된다. 이는 그가 월남작가로서 국토 탐구의 열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소설세계가 국토 전반에 대한 균형 있는 형상화로 발전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게 된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전광용의 마지막 장편소설 『창과 벽』의 아래와 같은 장면이 그것이다.

> 한민(韓民)은 담뱃불을 껐다. 그는 안전용 벨트를 당기어 혁대 위 배 언저리에 조여 매었다.
>
> 현해탄은 이미 시야에서 사라졌다. 기체는 육지 위를 날고 있다. 고국의 강토가 바로 눈 아래에 펼쳐진 것이다. 순간, 그에겐 걷잡을 수 없는 격한 감정이 치밀어왔다.
>
> (…중략…)
>
> 아메리카 대륙의 광활한 벌판, 하와이 상공에서 내려다뵈는 열대식물의 푸르름, 일본 땅을 횡단하는 사이에 부감하던 산야의 우거진 숲의 풍만감, 그런 것에 비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그에게는 붉은 흙이 띄엄띄엄 그 자체의 수척함을 소박하게 드러내놓고 있는 제 나라 땅이 가슴 뿌듯한 애착을 안겨다줌을 막을 길 없었다. 그는 소년마냥 한동안 여린 감상에 잠겨 있었다.[18]

이 작품은 대학교수인 한민이라는 주인공이 1965년 '한일협정'의 정국과 그로 인한 대학사회의 혼란과 고통을 온몸으로 겪는 이야기이다. 위 인용은 이 작품의 맨 앞부분에 나오는 대목인데, 한민(韓民)이라는 이름의 주인공이 미국에서 연구교수의 생활을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의 장면이다. 한민이라는 주인공의 이름도 대단히 민족주의적인 의미를 담아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국가에 대한 주인공의 애정 역시 위 인용처럼 자기 나라의 땅, 그러니까 국토에 대한 사랑으로 풀어내고 있다. 그러한 감정은 어떤 논리와 분별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격한 감정'의 자발적인 생성으로 묘사되어 리얼리티를 높여주고 있다. 이러한 면모는 전광용이 국토를 포괄적으로 탐구하고자 하는 종합에의 의지가 있

18) 『창과 벽』, 『전집(3)』, 236-237면.

음을 말해준다. 이처럼 국토에 대한 포괄적 관심과 애정은 다시금 그가 느꼈던 외로움과 깊이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광용 소설의 지배적 감정 중의 하나가 바로 외로움이고 그 감정은 다양한 인물 유형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국토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나아가게 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창과 벽』에서 고국에 돌아온 주인공은 점차 민족의 아픈 역사를 제대로 치유하지 못하고 오히려 경제개발이라는 미명 하에 일본과의 부당한 협정을 추진한 1965년 박정희 정권의 실상을 마주하게 된다. 그러한 협정에 반대하는 대학생들의 시위가 들불처럼 일어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서울 시내에 계엄이 선포된다. 많은 학생들이 연행되어 투옥되는 상황이 전개된다. 주인공 역시 시내 거리를 통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대학교수로서 자신의 연구실조차 마음대로 가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즉 주인공은 자신이 속한 국가, 도시, 대학 등의 각종 공간에 대한 주권적 사용의 권리가 박탈당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주인공은 시위 주동으로 서대문교도소에 수감된 제자들을 면회하면서 현실의 답답함을 느끼고, 대학 캠퍼스까지 침투한 정보경찰에 의해 감시당하고, 또 시위 학생들에 대한 학사지도까지 당국의 간섭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 작품은 군사정권의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통치방식으로 인해 행동의 자유만이 아니라 공간 이용의 자유마저 박탈당하는 당대 상황을 생생하게 형상화하고 있다.

이처럼 『창과 벽』은 초반에 잠시 등장한 국토 사랑의 감정이 정치적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으로 대체되면서 궁극적으로는 국민국가의 주권자 되기의 욕망과 그 곤경이라는 문제를 화두로 던진다. 이런 점을 볼 때, 국토에 대한 관심과 소설적 열정은 점차 국토라는 공간에서의 주권적 권리에 대한 관심으로 심화·발전하게 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것이 전광용 소설세계의 공간성을 이해할 수 있는 해석의 핵심 거점 중 하나이다. 전광용 소설의 인물들이 공간에 대해 갖는 주권 지향성이란 국민국가의 동

등한 성원권을 갖기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을 터, 이를 두고 '공간주권'을 향한 지향이라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19] 전광용 소설의 초기부터 이러한 국토 탐구의 열정은 지속되었으며 그에 연동된 공간주권의 논리는 예비된 상태로 왜곡된 국민국가의 정치적 현실과 마주해나가는 과정에서 점차 표면화되고 심화·발전되어 갔던 것이다. 예컨대 미군의 폭격 훈련에 의해 훼손되는 독도(獨島)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룬 「해도초」, 비록 섬의 간척지이지만 자기 땅을 일구는 보람을 찾아가는 이야기인 「곽서방」, 사상문제로 처남과 함께 감옥에 갇혀 이민을 꿈꾸는 주인공을 다룬 「죽음의 자세」 등에서 공간주권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그 문제의식이 점점 심화된다. 이승만 정권 몰락을 다룬 『젊은 소용돌이』나 박정희 군사정권의 병영체제화 프로젝트를 다룬 『태백산맥』 등도 같은 맥락에서 공간주권이라는 정치적 문제를 표면적으로 환기시켜주는 방향으로까지 나아간 작품들이다.

요컨대 국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이나 현실과 정치에 대한 관심은 전광용 소설의 이해에서 중요한 지점인데, 그 두 가지 특징적인 면모를 공간성의 문제로 풀어볼 때 전광용 소설의 일관성과 함께 성장 또는 발전의 논리를 찾아낼 수 있다. 즉 공간성의 측면에서 보면 전광용 소설의 기본 태도는 일관되면서도 역사적 현실에 대한 인식이 점차 심화·발전한다고 보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한 진단이고, 그에 입각하여 국민국가의 성원권 찾기의 방편으로서 공간주권의 논리가 점차 표면화되어갔다고 보

19) '공간주권(space sovereignty)'의 개념에 대해 김현경은 "공간에 대한 권리일 뿐 아니라, 공간에 대한 관계 속에서 표현되고 확인되는, 인민의 권리 자체"라고 규정한다.(김현경, 「인민의 권리와 인민이 될 권리」, 『공간주권으로의 초대』, 한울아카데미, 2013, 34면) 한편 유진상은 공간주권의 개념을 두고 공간의 주인이 될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물리적 대상이 꼭 그 자리에 있어야 할 당위성과 그 공간을 사용하는 인간 의지의 결합"을 의미한다고 본다.(유진상, 「도시경관, 도시재생: 아름다운 것은 적을 두렵게 한다」, 같은 책, 202면) 이런 점을 고려해볼 때, 공간주권이란 특정 공간과 그에 속한 사람의 정당한 관계를 바탕으로 그 사람이 해당 공간을 주인답게 누릴 권리를 의미한다고 규정할 수 있다. 이 글에서도 공간주권의 의미를 이런 의미로 보고자 한다.

는 것이 타당한 해석일 것이다.

4. 국민 정체성과 공간 주체성의 길항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전광용 소설은 결국 국토에 대한 깊은 관심과 탐구 정신을 거쳐 국토 사랑의 감정에 도달하지만 그것은 이미 국민국가 실험의 공간인 당시 한국에서는 공간주권의 문제였던 것이며 점차 그 문제로 구체화되고 또 집중되기에 이른다. 전대미문이라 할 국민국가의 국민이 된다는 것은 최초이기에 실험적인 것이며, 좌우 이데올로기의 분단에 따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그 정치적 실험은 오염될 소지도 다분했던 것이다. 게다가 미국, 소련, 일본 등의 외세에 의해 국가의 주권적 권리 행사가 지속적으로 훼손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정치적 실험이었기에 국민국가의 동등한 성원권을 얻고자 하는 노력은 각종 장애를 만나게 된다. 전광용 소설에서 국민국가의 국민 되기의 어려움은 바로 각자 자신만의 정당한 자리를 확보하지 못하지만 끝까지 자기 자리 찾기에 몰두하는 대부분의 작중 주요인물들을 통해 잘 형상화되고 있다. 그러한 자리 또는 장소 상실과 자리 찾기의 노력은 전광용의 소설세계 전반에서 두드러진 국토 탐구의 열정과 맞물려 국민국가라는 공간 속에서 국민 정체성을 모색하는 문제로 수렴되기에 이른다.

이념적 차원에서 말하자면, 국민국가에서의 국민 정체성이란 국토라는 공간에 대한 균등한 점유권을 대등하게 나누는 문제가 된다. 국민이라는 이념은 민속적이고 문화적인 차이와 다양성을 수평화하고 평준하는 대가로 달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20] 이런 점에서 국민국가의 문제틀에서 공간 정체성을 논하는 것은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성격을 지닌다. 전광용 소

20) 마르쿠스 슈뢰르, 정인모・배정희 역, 『공간, 장소, 경계: 공간의 사회학 이론 정립을 위하여』, 에코리브르, 2010, 216면.

설의 인물은 일단 국토라는 거대한 공간의 정체성을 추구하는 셈이다. 에릭슨의 주장에 따르면, “정체성이라는 용어는… 그 내부에 있는 지속적인 동일성과… 어떤 종류의 특성을 타자와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것 양자를 모두 의미한다.”[21] 그렇다면 국민 정체성(national identity)이란 곧 국민국가의 동등한 성원권을 지속적으로 갖고자 하는 열망의 도달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국가는 이전의 다양한 문화나 제도를 하나의 통일된 언어, 종교, 법체계, 화폐 제도 등으로 통일시키게 된다. 공간에 대한 균등한 점유권의 분배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국민국가에서 하나의 국민이 되는 메커니즘은 “다양성과 차이의 평준화를 대가로 이루어진다.”[22] 그러한 메커니즘은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끼리도 같은 국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해당 국가의 넓은 영토에 대한 균등한 점유권을 인정하고 또 보장하는 데서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볼 때, 전광용 소설에서 국토 전역에 관한 포괄적 관심과 그 소설적 형상화에 반영된 종합에의 의지는 일단 국민 정체성의 모색이라는 한 가지 지향성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 정체성의 논리는 또 다른 문제를 낳으니, 앞서 언급했던 획일성과 균질성으로 인해 생겨나는 주권적 권리의 침해 문제이다. 국토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다양성을 포괄하고자 했으나, 그것이 정체성이 갖는 동일성의 논리에 의해 획일화되고 균질화된 목소리의 공동체로 귀결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그것을 전광용은 염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여러 논자들이 일찌감치 지적해왔듯이, 전광용의 소설에는 소외된 이웃이나 불구적 상황에 놓인 인물이 다수 등장한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작가가 연민의 감정으로 그들을 소설의 소재로 삼고자 했다기보다는 균질화된 공동체적 질서 맞은편에 있는 이질적이고 낯선 인물들을 불러들여 획일성의 질서 너머를 상상하도록 자극했던 것이라 보아야 할 것 같다. 그의

21) 에드워드 렐프, 김덕현 외 역,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109면.
22) 마르쿠스 슈뢰르, 앞의 책, 216면.

소설 중에서 단편 「충매화」, 「세끼미」(1965), 「죽음의 자세」 등과 장편 『태백산맥』, 『젊은 소용돌이』, 『창과 벽』 등은 그러한 문제를 깊이 고민한 흔적을 읽어낼 수 있으며, 작품들의 발표 순서를 보건대 점점 그러한 국민 정체성과 그 모순 넘어서기의 문제에 깊이 빠져 들어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충매화」는 유복자이자 어머니가 기생이어서 아버지를 특정할 수 없는 주인공 '충'의 이야기이다. 그는 뿌리를 알 수 없는, 어머니조차 기생이어서, 자신의 생물학적 근본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는 원래부터 사회적으로 겉돌며 표류하던 인물이었던 것이다. 이 작품에서 국민 정체성의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대목이 나온다. "전쟁고아인 혼혈아 삼십명을 실은 비행기가 김포공항을 떠났다는 석간보도의 사진기사를 보면서 충은 혈연과 애정, 혈통의 순수성, 이런 문제를 다시 곱씹어 보는 것이었다."[23] 이 대목은 전쟁고아인 혼혈아들이 국민국가의 단일성의 공간으로부터 배제되는, 보기에 따라서는 추방되는 장면이다. 바로 그 대목에 이어지는 서사에서 주인공은 비슷한 처지의 자신과 대비시켜 세상에 대한 적의와 반감을 어떻게 지니고 살아왔는지를 조금씩 풀어낸다. 즉 이 작품은 주인공이 공간과 맺는 불화 등을 자세히 다루지는 않지만, 태어난 국가로부터 배제당하는 '전쟁고아인 혼혈아'와 충 자신을 비등하게 생각하는 장면을 길게 이어지게 함으로써 국민 정체성과 공간주권의 문제를 환기하는 것이다. 결국 주인공 충이 상황과 감정에 지배당해 살기보다는 자기 나름의 삶의 길을 택하는 용기를 보여주면서 이 작품은 마무리된다.

앞의 「충매화」에서 단서를 던진 문제를 보다 더 발전시킨 작품이 「세끼미」이다. 이 작품은 혼혈아 문제를 직접적으로 문제 삼으면서 정체성 문제를 직접적으로 펼쳐 보이는데, 백인 아빠와 한국인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 마리아를 주인공으로 삼은 이야기이다. 그녀는 성장하면서

23) 「충매화」, 『전집(1)』, 225면.

점차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며 자신이 혼혈아로서 다른 한국인들과는 육체적으로 조금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 그녀 역시 부모를 알 수 없고, 태어나자마자 남의 집에 버려졌던 것이다. 결국 그녀는 대학 진학을 앞 둔 상황에서 자신을 키워준 양부모에게 양해를 구하고 미국으로 입양하는 길을 선택하게 된다. 아래 인용처럼 이 작품은 마리아가 공간주권의 권리를 찾아 새로운 영토로 떠나는 것으로 서사가 마무리된다.

> 이십년의 인연으로 얽매인 아버지의 관심, 이질적인 육체에 대한 비굴감을 느끼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경수의 관심, 그리고 학교나 사회에서 접하는 부질없는 관심들, 이러한 모든 것에서 마리아는 해탈하고 싶어졌다.
>
> '꼭 너를 행복하게 해 준다고 보장할 수야 있겠니?'
>
> 아버지의 말이 등골에 전율을 일으켜왔다.
>
> 자기를 행복되게 하거나 불행하게 하거나 하는 모든 관심에서 잠시나마 떨어져 있고 싶었다. 자기 이외의 자기를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 자기에 대한 자기만의 관심으로 지친 심신을 휴식시키고 싶을 뿐이었다.
>
> 마리아는 집을 나왔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
> 결국 자기에 대한 책임은 자기 홀로 지고 자기 속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24]

위 인용이 보여주는 것은 국민 정체성 모색을 넘어선 새로운 공간 주체성(spatial subjectivity) 찾기의 논리이다. 「죽음의 자세」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읽을 수 있다. 앞서 거론했던 바 있지만, 이 작품은 이승만 정권 하에서 휴전선을 몰래 월남한 처남을 숨겨준 죄로 사상범으로 몰려 감옥살이를 하는 인물의 이야기이다. 그는 국민 정체성을 모색하고자 했으나, 분단으로 인해 국민국가의 국민 정체성이 심각히 오염된 상황에 그대로

24) 「세끼미」, 『전집(1)』, 454면.

노출되게 된다. 그리하여 그는 처남과 함께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이러한 장면은 닫힌 공간인 감옥에 수감된 인물의 처지와 함께 분단으로 인해 닫힌 국민국가의 현실과 오염된 국가 이데올로기까지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마지막 부분에서 장차 브라질 이민을 꿈꾸며 국민 정체성의 논리를 넘어서고자 한다.

1960년 이후 쓴 단편이나 장편 등에서 그러한 면모는 점차 심화되는데, 군복무를 대체할 방편으로 징집되어 태백산에서의 철도 건설 노동에 종사하는 이야기를 다룬 『태백산맥』에서도 국민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주체성의 상실을 보여주고 있다. 주인공이 복무하는 태백산에서의 국토 건설군의 모습은 마치 박정희 정권 하에서 점차 병영체제로 전환되어가는 당시 한국사회를 알레고리적으로 형상화했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 부대 내에서 수동적이고 비굴한 태도로 대응하는 주인공은 그 공간에 속한 인간 전체를 "절름발이의 집단!"[25]이라고 규정하며 공간적 정체성 획득의 곤란을 피력한다.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와 계엄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4·19 혁명의 이야기를 다룬 『젊은 소용돌이』나 박정희 정권에서의 굴욕적인 한일협정과 그로 인한 계엄 상황을 다룬 『창과 벽』 역시 같은 맥락에서 국민 정체성의 모색의 곤란과 함께 국민국가의 주권적 권리, 즉 주체성의 논리를 화두로 던지고 있다.

정리하면, 전광용 소설에는 크게 보아 우선 국민 정체성의 모색이라는 한 줄기 논리가 있고, 그에 맞서 정체성의 논리가 갖는 자체 모순과 한국적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공간주권 모색이라는 또 다른 논리가 서로 맞세워져있다. 그것은 일종의 구조적 대립쌍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전광용 소설에 대한 하나의 시각으로 운명론이 거론되어온 바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한쪽으로만 기울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은 지금껏 확인한 셈인데, 자기만의 자리 또는 장소에 대한 열망과 함께 새로운 공간에 대

25) 『태백산맥』, 『대계』, 168면.

한 동경 등도 전광용 소설세계의 중요한 한 축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결국 그러한 면모는 전광용 소설이 갖는 미적 균형감각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는바, 그의 소설이 삶에 대한 지나친 허무주의나 패배의식으로 귀결되지 않고, 두 지향성이 상호 견제와 반성의 역학 속에서 작용하는, 그리하여 입체적인 서사세계를 구축하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5. 맺음말

작가 전광용을 두고 '발로 쓰는 작가'(이형기)라는 명칭이 붙기도 했다. 리얼리스트적 면모가 매우 강한 작품을 다수 썼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현실에서 직접 소재를 찾고 그것으로 소설적 형상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소설 창작의 과정은 작가의 선택적인 주목과 배제의 활동을 거치게 되며, 또 작가가 제재를 모으고 다듬어나가면서 독자적이자 미적으로 갖추어진 소설적 세계를 구축해가는 작업이 된다. 따라서 전광용 소설의 현실 참여적 태도나 현장성뿐만 아니라 그 특성의 근저에 흐르는 세계관과 미적·구조적 특질을 함께 사유하여 그의 소설세계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핵심 논리를 발굴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이런 문제의식에 따라 이 연구는 전광용 소설세계 전반을 관통하는 공통성으로 공간에 주목하여 그러한 공간과 인물이 맺는 관계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것은 전광용 소설을 공간성이라는 방법론을 통해 총체적으로 해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보았지만, 전광용 소설세계의 공간성과 관련하여 좀 더 세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전광용 소설세계의 특성을 바탕으로 우선 공간성의 공통된 특징에 주목함과 동시에 그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점차 심화·발전된 측면을 순차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시각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논의하였다. 하나는

소설세계 전반에 걸친 공간성의 공통성에 대한 분석이다. 우선 이러한 시각에 따라 자료를 검토해보면, 전광용 소설에서는 대체로 고독한 인물이 등장하며 그 인물은 자신의 고독한 상황을 타개해나가는 방식으로 자리 또는 장소에 대한 열망을 표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검토한 것은 그 공간성의 특징이 기본적으로 공유하는 지점을 바탕으로 점차 심화·발전되는 양상에 대한 분석이다. 이러한 시각에 따라 전광용 소설의 공간성을 분석해보면, 특히 작중 주요인물이 국토 탐구에 대한 열정을 거쳐 점차 자신이 처한 공간에서 성원권을 획득하기 위한 노력과 열정이 두드러지는 방식으로 구체화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해방 이후 본격적인 국민국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각종 난관과 그에 맞선 주권자의 자리 찾기에 대한 소설적 탐구로 구체화되는바, 이는 국민국가의 공간주권 모색이라는 정치적 의미로 심화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그의 소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수필 등의 각종 산문 등을 보면, 일제강점기에는 민족해방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었고 분단체제 이후에는 조국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이 보여주었던바, 전광용은 분명히 민족주의자였다. 함경도 북청 출신의 실향민이자 월남작가인 전광용은 북에 두고 온 부모님과 고향 땅을 끝없이 그리워했다. 민족주의자로서 분단의 아픔은 남북한으로 쪼개진 민족의 영토 중 남쪽의 국토라도 가급적 넓게 탐구하고 자신과 함께 그 속에서 살아가는 국민국가의 주권자들이 누려야 할 공간주권에 대한 탐구로 심화되어갔다. 이처럼 전광용은 민족주의자적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며, 국토에 대한 포괄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다양한 인물과 다양한 공간을 서사 속에 녹여내며, 국민국가의 공간주권 모색이라는 정치적 논리로까지 파고들어갔던 것이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전광용, 『꺼삐딴 리 외(전광용문학전집1)』(전광용문학전집 간행위원회 편), 태학사, 2011.

전광용, 『태백산맥 외(전광용문학전집2)』(전광용문학전집 간행위원회 편), 태학사, 2011.

전광용, 『창과 벽 외(전광용문학전집3)』(전광용문학전집 간행위원회 편), 태학사, 2011.

전광용, 「태백산맥」, 『한국소설문학대계(33): 전광용 · 정한숙』, 동아출판사, 1995.

2. 단행본

강현수 외, 『공간주권으로의 초대』, 한울아카데미, 2013.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문학과지성사, 2015.

류동규, 『전후 월남작가의 자아정체성 서사』, 역락, 2009.

전광용, 『두고 온 고향 외(전광용문학전집6)』(전광용문학전집 간행위원회 편), 태학사, 2011.

최병두, 「장소의 역사와 비판적 공간이론」, 『로컬의 문화지형』, 혜원, 2010.

도린 매시, 박경환 외 역, 『공간을 위하여』, 심산, 2016.

에드워드 렐프, 김덕현 외 역,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마르쿠스 슈뢰르, 정인모 · 배정희 역, 『공간, 장소, 경계: 공간의 사회학 이론 정립을 위하여』, 에코리브르, 2010.

오토 프리드리히 볼노, 이기숙 역, 『인간과 공간』, 에코리브르, 2011.

이-푸 투안, 구동회 · 심승희 공역, 『공간과 장소』, 대윤, 2005.

3. 논문 및 기타

권영민, 「전광용의 현실인식과 소설적 기법」, 『소설과 운명의 언어』, 현대소설사, 1992.

김만수, 「비극적 삶, 소외의 극복양상」, 『전광용 대표작품선집』, 책세상, 1994.

김종욱, 「전광용 소설에 나타난 삶의 윤리」, 『개신어문연구』제27집, 개신어문학회, 2008, 173-195면.

류양선, 「시대적 상황과 개인적 진실」, 『두고 온 고향 외(전광용문학전집5)』(전광용문학전집 간행위원회 편), 태학사, 2011.

박정희, 「전광용 장편소설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제28집, 한국현대문학회, 2009, 365-395면.

변화영, 「혼혈아의 차별적 시선과 대응적 정체성」, 『비평문학』제49호, 한국비평문학회, 2013, 205-230면.

서세림, 「월남작가 소설 연구: '고향'의 의미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안리경, 「전광용 문학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윤석달, 「변경의 삶과 시대의 초상: 전광용론」, 송하춘 · 이남호 편, 『1950년대의 소설가들』, 나남, 1993.

이형기, 「인간수호의 시선: 전광용론」, 『현대한국문학전집(5)』, 신구문화사, 1967.

임송자, 「1961년 5 · 16 이후 국토건설사업과 국토건설단 운영 실태」, 『한국근현대사연구』제67집, 한국근현대사학회, 2013, 900-942면.

전소영, 「월남 작가의 문학 세계에 나타난 주체 형성 과정 연구: 최인훈과 이호철의 소설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조남현, 「전광용론: 리얼리티에의 투망, 그 정신과 방법」, 『한국현대작가연구』, 문학사상사, 1991.

주지영, 「전광용 단편소설에 나타난 서사구조의 유형화」, 『한국문예비평연구』제52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6, 288-317면.

<Abstract>

The Spatiality and the Space Sovereignty of the Nation-State in Cheon Kwang-yong's Novels

Kim, Keun-ho

In the novels written by Cheon Kwang-yong, the native of Bukcheong, Hamkyong Province, space has important meanings. However, the space shown in the Cheon Kwang-yong's novels has not been much spotlighted so far compared to its importance. Under these circumstances, it is necessary to discover the key logic that penetrates the whole world of His novels, depending on the analysis framework of human-to-space relationship.

However, it is necessary to approach this issue in more detail, focusing first on the common characteristics of spatiality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novel world, and then gradually reviewing the developed aspects. Based on this view, the study was discussed in two main directions. One is the analysis of the commonality of spatiality throughout the novel world. First of all, there is a generally lonely characters in the whole novels who expresses his or her eagerness for a place or place in a way that breaks through his or her lonely situation. The next review is the analysis of the increasingly developed aspect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spatiality basically shared. Based on this view, the analysis of the spatiality of Cheon Kwang-yong's novels shows that the main characters in his novels undergo the passion for exploring the national territory and gradually materialize in a way that highlights their

efforts and passion to get the right supporting themselves in the space they live in. In other words, it can be interpreted that Cheon's novels, searching for the place of the sovereign against various difficulties arising from the process of creating a nation-state after Korea's liberation from Japan's colonial rule, has deepened in the political meaning of seeking the space sovereignty in the nation-state.

To sum up, Cheon Kwang-yong had shown quickly literary responses his contemporary society and political reality, based on his nationalistic attitude. He clearly recognized that being called the nation in a political system, the first nation-state to meet since liberation, coincides with getting space sovereignty. In that sense of political logic and an aesthetic sense of balance, he had written narratives to contain a confrontation between national identity and spatial identity.

Key words: Cheon Kwang-yong, the Authors coming to the South Korea over the 38th parallel, space, spatiality, place, loneliness, national territory, nation, space sovereignty, identity, subjectivity

투 고 일 : 2019년 11월 15일 심 사 일 : 2019년 11월 18일–12월 6일
게재확정일 : 2019년 12월 11일 수정마감일 : 2019년 12월 26일